

3·1운동기 한국 불교계의 역동성과 현재적 반성

김순석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

seok333@hanmail.net

I. 머리말

II. 불교계 3·1운동 연구동향

III. 3·1운동기 불교계의 참여와 역동성

IV. 현시점에서 반성과 과제

요약문

2019년은 3·1운동이 발발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일제강점기 민족해방운동사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3·1운동은 준비 과정에서 천도교·기독교·불교계 지도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중앙의 만세시위를 지방으로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종교 조직이 크게 활용되었다. 불교계의 3·1운동 만세시위 현상 또한 이와 비슷하게 진행되었다.

불교계 3·1운동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옥중에서도 투쟁이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들은 종로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열람하고, 종로경찰서로 연행되었고, 이후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었다. 한용운은 1919년 7월 서대문형무소에서 일본 검사의 요구로 옥중에서 집필한 「조선독립의 서」를 집필하였다. 이 논설은 조선이 왜 독립되어야하는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며, 조지훈에 의해서 당대 명문으로 평가되었다.

1919년 불교계 3·1운동은 그 해 11월 15일 상해에서 불교계의 고승 12명이 「대한승려연합회선언서」를 발표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대한승려연합회선언서」는 불교계가

일제에 투쟁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선언서는 평화를 지향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모습보다는 혈전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왔다. 이 선언서는 독립쟁취를 위해 일제에 혈전을 선언한 투쟁을 넘어 세계평화를 지향하고 있었다. 물론 국외에서 3·1운동의 여파는 해가 바뀌어도 해마다 3월 1일이 돌아오면 해외에서 3·1운동기념식 거행되었고 만세 시위도 이어졌다. 그런 까닭에 3·1운동은 민족해방을 쟁취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본다.

3·1운동에서 불교계 만세시위만을 검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범위를 사찰과 포교당 등에서 승려들과 불교인들이 모여서 논의되고 결행되었던 것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아울러 평화적인 방법으로 독립을 요구하였던 불교계 3·1운동을 어떻게 현상하고 계승해야하는지를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

주제어

불교계 3·1운동, 한용운, 백용성, 백초월, 중앙학림, 조선독립의서, 대한승려연합회선언서

I. 머리말

2019년은 3·1운동이 발발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일제강점기 민족해방운동사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3·1운동은 준비과정에서 천도교·기독교·불교계 지도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중앙의 만세시위를 지방으로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종교 조직이 크게 활용되었다.¹⁾ 3·1운동에서 특정 종교의 활동 상황만을 따로 살펴보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만세시위 군중 가운데 불교인들의 숫자를 집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1운동에서 불교계 주도로 진행된 만세시위를 살펴보려면 사찰과 포교당 등에서 승려들과 불교인들이 모여서 논의되고 결행되었던 사건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독립운동에 있어서 불교인만을 굳이 고집할 필요는

1) 이덕주, 「3·1운동과 기독교」, 『한국기독교와 역사』(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엮음, 2017), pp.107-108.

없다. 왜냐하면 촉발시키는 주인공들만으로 운동과 시위가 성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동자의 선창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여 시위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위는 더 의미가 있고 성공적이기 때문이다.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만세시위만을 말하지는 않는다. 만세시위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되었고, 이러한 시위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그 해 5월 말까지 계속되었다. 당시 상황을 전하는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집계된 통계가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는 때문이다.

불교계 3·1운동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옥중에서도 투쟁이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들은 종로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열람하고, 종로경찰서로 연행되었고, 그들은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었다. 이 때 감옥 안에서 민족대표들에게 극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풍문이 돌자 그 가운데는 불안과 절망에 빠져 통곡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이에 격분한 한용운은 감방 안에 있던 분노통을 들어 나약해진 일부 대표에게 뿌리며 “이 비겁한 인간들아, 울기는 왜 우느냐 나라 잃고 죽는 것이 무엇이 슬프냐? 이것이 소위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다는 민족대표의 모습이냐? 그 따위 추태를 부리려거든 당장 취소해 버려라!”라고 호통을 쳤다고 한다.²⁾ 한용운은 1919년 7월 서대문형무소에서 일본 검사의 요구로 옥중에서 집필한 「조선독립의 서」를 집필하였다. 이 글은 조선이 왜 독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조지훈에 의해서 당대 명문으로 평가되었다.³⁾

불교계 3·1운동 또한 1919년 3월에서 5월까지 기간에 국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해 11월 15일 상해에서 고승 12명이 「대한승려연합회선언서」를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대한승려연합회선언서」는 불교계가 일제에 투쟁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하였다.⁴⁾ 지금까지 이 선언서는 평화를 지

2) 박결순, 『한용운의 생애와 독립운동』(천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2), pp.85-86.
 3) 조지훈, 『民族主義者 韓龍雲』, 『韓龍雲全集』 4(서울: 불교문화연구원, 2006), pp.363-364.
 4) 김소진, 『한국독립선언서연구』(서울: 국학자료원, 1998); 김광식, 「대한승려연합회선언서와 민족 불교론」, 『민족불교의 이상과 현실』(안성: 도피안사, 2007); 김광식, 「백초월의 삶과 독립운동」, 『민족불교의 이상과 현실』(안성: 도피안사, 2007); 한동민, 「일제강점기 신상완의 독립운동」, 『대

향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모습보다는 혈전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뜻이 강조되어왔다. 김순석은 이 선언서를 독립쟁취를 위해 일제에 혈전을 선언한 투쟁을 넘어 세계평화를 지향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⁵⁾ 물론 국외에서 3·1운동의 여파는 해가 바뀌어도 해마다 3월 1일이 돌아오면 각국 현지 교민들이 중심이 되어 3·1운동기념식 거행되고 만세 시위도 이어졌다. 그런 까닭에 3·1운동 범위를 1919년 5월 말까지로 한정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박은식(朴殷植)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韓國獨立運動之血史)』에 따르면 3·1운동에 참가한 사람의 수는 2,023,098명이고, 사망자 수는 7,509명이며, 부상자 수는 15,961명이다.⁶⁾ 불교계 독립운동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불살생 계율의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자비를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적에게 나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가’하는 문제와 만나게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살라는 말인가. 이와 같이 회색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사상이 어디 또 있던 말인가’라고 묻는다.⁷⁾ 그렇지만 불교는 나의 목숨을 요구하는 적에게 나의 목숨을 내어줄지언정 적을 살상해서는 안된다고 가르치고 있다.⁸⁾ 그런데 이 문제는 나의 목숨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목숨도 함께 걸린 문제이다. 작은 희생을 감수하고 많은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3·1운동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서 자유로운 독립운동이었다. 왜냐하면 3·1운동은 의병전쟁이나 무장투쟁처럼 적에게 무력으로 항쟁하는 투쟁이 아니었고, 평화적이었고, 비폭력적인 무저항의 만세시위였기 때문이다. 3·1운동은 비폭력의 무저항 운동이었음에도 일제강점기 그 어떤 독립운동보다

각사상」 제13집(서울: 대각사상연구원, 2010)

5) 김순석, 「대한승려연합회선언서」, 『불교학보』66(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3)

6) 백암박은식선생전집편찬위원회, 『白巖朴殷植全集』II(서울: 동방미디어, 2002), p.526.

7) 송석구, 「경전에 나타난 호국사상」, 『불광』통권 56호(서울: 불광사, 1979, 6), p.77.

8) 鳩摩羅什譯, 「離相寂滅分」, 須菩提 如我昔爲歌利王 割切身體 我於爾時 無我相人相衆生相 無法相 亦無非法相 『金剛般若波羅蜜經』(금강경독송회, 1996), p.11.

도 규모가 컸으며 영향력과 파급효과도 지대하였다. 총칼 앞에 맨몸으로 저항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2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II. 불교계 3·1운동 연구동향

지금까지 불교계 3·1운동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만세시위의 전개과정과 규모를 밝히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해석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왔다. 우리 사회가 3·1운동과 그 정신을 기념할 수 있게 된 것은 해방 직후인 1946년 3월이었다. 1946년 3월 각 언론들은 3·1운동과 그 정신을 현창하는 글들을 다투어 발표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불교계 3·1운동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김법린(金法麟)은 자신이 참여하였던 3·1운동의 기억을 더듬어 「3·1운동과 불교」라는 회고문을 불교계의 잡지였던 『신천지』와 『신생』에 발표하였다.⁹⁾ 당시 사회는 신탁통치 찬반을 둘러싸고 사회가 좌우로 양분되어 3·1운동 기념식마저도 서울과 평양에서 따로 개최되었다. 이후 불교계의 3·1운동에 대한 기억은 한 동안 잊혀졌다가 1969년 동아일보사가 주관한 3·1운동 50주년 기념 논총에서 되살아났다. 이 논총에 수록된 안계현의 논문¹⁰⁾이 최초의 논문인데 이 논문은 김법린의 회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었다. 그 후로 이 분야의 연구는 활성화되지 못하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 근현대 불교사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불교계의 3·1운동은 비로소 연구¹¹⁾되기 시작하였다. 1990

9) 김법린, 「3·1운동과 불교」(서울: 《新天地》 제1권 제3호, 서울신문사, 1946, 3); 김법린, 「3·1운동과 불교」(서울: 《新生》, 新生社, 1946, 3)

10) 안계현, 「3·1운동과 불교계」, 『三一운동 50주년 기념논문집』(서울: 동아일보사, 1969)

11) 김상현, 「3·1운동에서의 한용운의 역할」, 『이기영박사고회기념논총』(서울: 이기영박사고회기념논총편찬위원회, 1991); 박결순, 「한용운과 공약삼장」, 『동국사학』19·20(서울: 동국사학회, 1986); 박결순, 앞의 책, 『한용운의 생애와 독립투쟁』; 박결순, 「3·1독립선언서 공약삼장 기초자를 둘러싼 논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8집(천안: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4); 김소진, 앞의 논문, 「大韓僧侶聯合會宣言書와 佛敎界의 獨立運動」; 김소진, 앞의 책, 『대한독립선언서연구』.

년대 후반까지 불교계 3·1운동은 대체로 3·1만세 시위에 참가하였던 당사자들의 회고록이 신문이나 잡지에 기고되는 정도였다. 불교계의 3·1운동은 한용운(韓龍雲) 연구에 집중되어있었다. 한용운에 대한 연구성과는 현재 1,000여권이 넘는다고 한다.¹²⁾ 한용운 연구는 대체로 문학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 3·1운동과 독립운동에 관한 연구는 문학 부분의 연구에 비해 부진한 편이다.

한용운의 3·1운동 참여에 관한 연구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공약삼장 집필에 관한 것이다. 이른바 한용운 수정설과 최남선 전담설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논의는 해방 직후부터 제기되었다. 김법린은 「3·1운동과 불교」라는 글에서 선언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기초위원으로 최남선(崔南善)과 최린(崔麟) 그리고 한용운 3인이었다고 한다. 최남선은 선언서를 집필하되 서명하지 않고 한용운이 그것을 수정하기로 하였다고 한다.¹³⁾ 한용운의 공약삼장(公約三章) 추가설은 그의 제자들과 추종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¹⁴⁾ 한용운의 공약삼장 추가설에 대하여 반론 또한 강하게 제기되었다. 조용만은 최남선의 심문기록을 통하여 한용운이 독립선언서가 인쇄되기 전에 열람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고 한다.¹⁵⁾ 그의 이러한 주장은 신용하에 의해 보다 정치하게 논증되었다. 신용하는 공약삼장¹⁶⁾ 가운데 제2장인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궤히 발표하라」는 귀절에 대한 심

12) 김광식, 『한용운 연구』(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1), p.5.

13) 金法麟, 앞의 글, 「3·1運動과 佛敎」(서울: 《新生》), pp.16-17.

14) 박노준·인권환 공저, 『萬海 韓龍雲研究』(서울: 통문관, 1960); 安啓賢, 「3·1운동과 불교계」, 『3·1운동 50주년 기념논집』(서울: 동아일보사, 1969); 崔凡述, 「鐵窓哲學」, 『나라사랑』 2집(서울: 외솔회, 1972); 康武雄, 「萬海 韓龍雲論」, 『창작과 비평』(서울: 창작과비평사 1972년 겨울호); 金觀鎬, 「尋牛莊見聞記」, 『한용운사상연구』 2(서울: 한용운사상연구회, 1981); 김상현, 앞의 논문, 「한용운과 공약삼장」.

15) 조용만, 「독립선언서의 성립 경위」, 『3·1운동 50주년 기념논집』(서울: 동아일보사, 1969), p.221.

16) 공약삼장의 내용은 이렇다.

- 一. 今日 吾人의 此舉는 正義, 人道, 生存, 尊榮을 爲하는 民族의 要求이니, 오즉 自由의 精神을 發揮할 것이오, 결코 排他的의 感情으로 逸走하지 말라.
- 一. 最後의 一人까지, 最後의 一刻까지 民族의 正當한 意思를 快히 發表하라.
- 一. 一切의 行動은 가장 秩序를 尊重하야, 吾人의 主張과 態度로 하야금 어대까지던지 光明正大하게 하라.

문에서 한용운은 전혀 받은 바 없었고, 최남선은 심하게 추궁받았다고 한다. 신용하의 주장은 홍일식과 박결순에 의해 보강되었다. 홍일식은 한용운이 공약삼장을 추가하였다는 근거는 한용운이나 다른 사람의 증언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한다. 박결순이 최남선 전담설을 주장하는 근거는 이렇다. 「독립선언서」의 공약삼장은 이 시기 국내외에서 발표된 수십 종의 선언서류나 격문류에 그대로 반영되거나, 만세시위 현장에서 구호로써 고창되었다. 따라서 공약삼장은 3·1운동에서 민족대표와 민중 사이에서 단절된 층위의 가교 역할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는 만세시위의 전국 확산과 격렬한 시위 형태에 영향을 끼쳤다. 3·1운동사에서 민족대표들의 대표성 논의나 시비와는 별도로 만세시위에서 ‘공약삼장’이 지니고 있는 상징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박결순은 2001년 8월 14일 만해 생가에 ‘공약삼장비(公約三章碑)’가 제막되는 등 만해 추가설이 역사 사실로 확정되는 듯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그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까닭을 공판 과정에서 한용운 발언 가운데 일부를 확대 해석하거나, 만해 문도들의 전문(傳文)을 절대시하여 최남선 평가와 연계하려는데 있다고 한다. 심지어 육당 전담론자조차도 그 연장선상에서 곡해하려는 배타적 경향도 보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¹⁷⁾ 박결순은 최남선이 일반인과 민족대표들까지도 인정하는 당대 최고의 문장가였다는 것이다. 만일 최남선이 기초한 원고에 침삭이 가해졌다면 그가 이의를 제기하였을 것이라고 한다. 박결순은 한용운의 추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개 한용운 주변 인물들의 회고 등을 통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나 한용운의 법정 진술기록, 공약삼장의 내용을 불교 교리와 연계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논리적인 비약이며 신빙성이 결여되어있다고 한다.¹⁸⁾ 이러한 까닭에 이 논쟁이 합일점을 찾으려면 결정적인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¹⁹⁾

17) 박결순, 「3·1독립선언서 공약삼장 기초자에 대한 재론」, 『한국근현대사연구』46(서울: 한국근현대사연구회, 2008), pp.176-177.

18) 박결순, 앞의 책, pp.76-83.

19) 김순석, 「한용운의 민족주의 운동 연구 전망」, 『만해학보』14·15합(서울: 만해사상실천선양회,

공약삼장 논의와 관련이 되기는 하지만 불교계 3·1운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2000년대가 되어서야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비로소 불교계 3·1운동 연구에 대한 상황 점검이 이루어지고, 3·1만세 시위와 승려들의 구체적인 행적이 밝혀지기 시작한다. 민족대표로 참여하였던 한용운·백용성 두 승려의 행적을 넘어서 박한영·백초월·오성월·박영희 등의 활동에 대한 조명²⁰⁾이 진행되었다. 한동민은 「3·1운동과 불교계의 항일운동」²¹⁾을 발표하였고, 김광식의 「3·1만세운동과 불교」²²⁾는 현시점에서 연구성과를 평가하고, 향후의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성과는 불교계 3·1운동의 현재 좌표와 지향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2019년 2월에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주관 학술세미나에서 7편의 논문들이 발표²³⁾되었다.

불교계 지방 3·1운동에 관해서는 아직도 연구가 많이 미진한 편이다. 김순석은 전국의 불교계 3·1운동 전개 상황을 일시와 시위장소, 주도자, 참가인원, 피검자수 등을 제시하였다.²⁴⁾ 이후 2003년에는 경남 밀양 표충사 3·1운동의 조명²⁵⁾이 있었다. 경남 지역 불교계 3·1만세 시위가 일어났던 곳은 양산 통도사, 밀양 표충사, 부산 동래 범어사, 합천 해인사 등이다. 통도사의 3·1운동은

2015), pp.242-243.

- 20) 김광식, 「백초월의 삶과 독립운동」, 『불교학보』 39(서울: 불교학회, 2002); 김광식, 「박영희의 독립운동과 민족불교」, 『대각사상』 제25호(서울: 대각사상연구원, 2016); 김광식, 「오성월의 삶에 투영된 선과 민족의식」, 『불교와 국가』(서울: 국학자료원, 2013); 김광식, 「3·1만세운동과 불교」, 『3·1만세운동과 종교계』(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7); 김광식, 「백초월의 항일운동과 진관사」, 『불교와 국가』(서울: 국학자료원, 2013)
- 21) 한동민, 「3·1운동과 불교계의 항일운동」,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5권(서울: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2016)
- 22) 김광식, 앞의 논문, 「3·1만세운동과 불교」.
- 23) 2019년 2월 27일 대한불교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 주관으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고,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김순석, 「불교계 3·1운동에 나타난 세계평화주의」; 이경순, 「해방 후 불교잡지 『新生』에 나타난 불교계 3·1운동의 기억과 표상」; 한상길, 「金龍寺의 3·1운동」; 김경집, 「3·1운동 이후 불교계 항일 정신의 계승」; 이동연, 「불교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참여와 지원활동」; 최화정, 「해인사의 3·1운동」; 김광식, 「통도종의 민족교육과 폐교사건 -3·1정신 계승의 사례」.
- 24) 김순석,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대응』(서울: 경인문화사, 2003), pp.78-79.
- 25) 강만길 편, 『밀양의 독립운동사』(밀양: 밀양문화원, 2003)

중앙학림 학생 오택언이 3월 5일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내려와 비밀리에 승려 및 지방학림 학생들과 모의를 시작하면서 전개되었다. 오택언은 통도사 지방학림의 대표 김상문(金祥文)과 통도사 강원 승려 등과 함께 3월 13일 신평 장날 거사를 일으키기로 하였다. 그러나 3월 7일 관련자의 밀고로 인해 주동자 오택언이 검거되어 만세 시위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으나 3월 13일 거사는 진행되었다. 김상문을 비롯한 지방학림 학생 수십 명과 불교 전수부 학생 10여명 등은 약속된 신평 장날 장터에서 거사를 일으켰으며 줄다리기 군중과 장꾼들이 합세하여 자못 성대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²⁶⁾ 뒤늦게 사건을 접수한 헌병과 경찰이 현장을 급습하자 군중들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주모자인 김진옥(金鎭玉: 일설에는 金鎭五라고도 함)은 체포되었고, 김상문은 상해로 밀항하여 임시정부의 특파원으로 활동하였다.²⁷⁾ 당시 하북면사무소에 근무하였던 박세문(朴世文)은 거사를 암암리에 돕고 주동자들을 피신시켰다고 한다. 이후 박세문은 면서기직을 사임하고 일본으로 피신하였으나 일경의 추적으로 검거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해 빈사 상태로 석방되었다. 그는 고문 후유증으로 1개월 후인 1920년 9월 5일 일본 고베[神戸]시 나가다[長田]에서 사망하였다고 한다. 같은 해 박세문의 유해가 물금 가촌으로 돌아오자 양산 청년회에서는 범어사 뒷산 선영에 청년회장으로 안장하였다고 한다.²⁸⁾ 한편 서울로 압송된 오택언은 1919년 11월 6일 경성 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형을 언도받고, 1920년 2월 27일 경성 복심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1년여 기간동안 옥고를 치렀다.²⁹⁾ 통도사 3·1운동에 대해서 김광식은 「통도중의 민족교육과 폐교사건: 3·1정신 계승의 사례」에서 1941년 9월 4일 통도사가 운영하고 있던 중등학교인 전수학교 교사인 김말복(법명: 수성)과 조병구(법명: 용명)가 일본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두 교사는 학생들에게 항일민족교육을 하였다는 죄목으로 2년간 감옥살이를 하였다. 이 사건으로 통도사 전수학교는 폐교되었

26) 양산군향토사연구회, 『중보판 양산항일독립운동사』(양산: 양산문화원, 2009), pp.80-81.

2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4권(서울: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3), p.305.

28) 한상길, 「통도사와 표충사의 3·1운동」, 『한국불교학』89(서울: 한국불교학회, 2018)

29) 한상길, 앞의 논문.

고, 해방 이후 보광중학교로 복원되었다고 한다. 이 논문은 이 사건을 통도사의 3·1운동과 항일민족 정신계승 차원에서 접근하였다.³⁰⁾ 경남지역 3·1운동에 관해서는 최화정은 「해인사의 3·1운동」에서 해인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경남 지역의 3·1운동을 최범술의 회고록과 불교계 신문기사를 주요자료로 하여 분석하였다.³¹⁾

경남 지역 3·1만세 시위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표충사 시위는 1919년 3월 20일 통도사 승려들이 찾아와 비밀회합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협의한 데서 비롯되었다.³²⁾ 표충사의 만세 시위는 통도사 승려들과 연대해서 전개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표충사 3·1만세 시위는 법무 사무를 보고 있던 이장옥(李章玉)이 서기 일을 보고 있던 김종석(金鍾碩)에게 「선서(宣書)」라고 된 격문을 등사시킨 데서 시작되었다. 격문의 주요 내용은 ‘우리는 민족대표들의 신탁에 따라 조선을 위해 생명을 바쳐야 하며, 2천만 민족은 사람마다 만세로써 품고 있는 정의의 군을 길러 민족대표의 최후 신탁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표충사 만세 시위는 단장 장날인 4월 4일에 일어났는데 이장옥·이찰수·오학성·손영식·김성흡·구연운·오응석 등이 주도하였다. 이들은 단장 장날 승려·학생 등 30여명이 장꾼들에게 나누어 줄 태극기를 품고 장으로 들어왔다. 일본 경찰의 집계로 약 5,000여 명의 군중들이 모였으며 12시 30분경 이장옥·이찰수·오학성 등이 ‘조선독립만세’라고 쓴 깃대를 세우고 장터를 돌기 시작하자 군중들은 여기에 호응하여 만세를 따라 불렀다.³³⁾ 청년 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자, 시위 군중들은 헌병주재소로 몰려갔다. 군중들은 돌을 던져 주재소의 유리창·지붕·벽 등을 완전히 파괴시켰다. 시위 군중들은 출동한 밀양 헌병대에서 급파된 군인들의 발포로 말미암아 해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 헌병들이 시위 군중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자 격분한 군중들은 다

30) 김광식, 「통도종의 민족교육과 폐교사건: 3·1정신 계승의 사례」, 『불교계의 3·1운동과 항일운동』 발표자료집(서울: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019, 2, 27.)

31) 최화정, 앞의 자료집, 「해인사의 3·1운동」.

32) 강만길 편, 앞의 책, 『밀양의 독립운동사』, p.239.

33) 한상길, 앞의 자료집, p.59.

음날 오후 2시까지 일본 군경의 경계 속에도 수 차례 주재소 습격하였다. 일본 군 지원 부대가 도착하자 군중들의 항쟁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었다. 표충사와 통도사의 승려가 주동이 된 단장 장터 만세 시위는 불교계 3·1만세 시위 가운데서도 규모가 큰 것이었다.³⁴⁾ 단장 장터 만세 시위사건으로 주동자 3백 64명이 검거되었고, 그 가운데 71명이 검찰에 송치되어 이장옥·오학성·손영식 등은 3년형을 받았고, 이찰수·김성흡 등은 1년형을 받았다. 이들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여 대구 복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으니 오히려 형량이 2년으로 가중되었고, 나머지는 원심의 형을 받았다고 한다.³⁵⁾

경북지역 3·1운동은 한상길에 의해서 김용사(金龍寺)의 3·1운동이 발표³⁶⁾되었다. 그는 이 논문에서 김용사의 3·1운동은 1919년 4월 13일 경북 문경군 산북면 김용사 지방학림 학생들이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사전준비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용사 주지 혜옹(慧翁)의 저지로 만세 시위는 결행되지 못하였다. 이튿날 학생들은 전원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대부분 석방되었지만 송인수(宋仁洙)와 성도환(成道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³⁷⁾

불교계 3·1운동 연구는 100주년을 기념해서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연구 성과들이 배출되었다. 경북대학교 인문대학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영남지역 3·1운동의 실상을 파악하고 재조명하기 위하여 『영남의 3·1운동과 만주의 꿈』이란 단행본을 발간하였다. 그런 까닭에 이 책은 영남지역 3·1운동 현황이 잘 규명되었고, 영남지역 인사들이 망명하여 만주지역에서 전개한 독립운동과 만주에서의 망명생활이 잘 드러나있다. 이 책에 수록된 「3·1운동기 영남지역 종교계의 동향」³⁸⁾은 영남지역 불교계 3·1운동을 살펴볼 수 있는

34) 한상길, 앞의 자료집, p.59.

35) 한상길, 앞의 자료집, p.59.

36) 한상길, 앞의 자료집, 「金龍寺의 3·1운동」, 『불교계의 3·1운동과 항일운동』.

37) 한상길, 위의 논문, 「金龍寺의 3·1운동」, p.48.

38) 김순석, 「3·1운동기 영남 지역 종교계의 동향」, 『영남의 3·1운동과 만주의 꿈』(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2019, 2)

논문이다. 100주년을 맞이한 오늘 이 시점에서 3·1운동은 임시정부 탄생의 계기가 되었고 그 법통이 오늘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³⁹⁾ 불교계 3·1운동 연구는 기독교계 3·1운동 연구에 비하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III. 3·1운동기 불교계의 참여와 역동성

3·1운동은 일제강점 이후 10년간 진행되어온 일제의 가혹한 식민통치 정책에 저항한 거족적인 독립운동이었다. 발단은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함으로써 시작되었지만 이후 학생층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파급되면서 대중운동으로 확산되었다. 불교계 3·1운동 참여는 논의 단계에서부터 시작되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한용운이었다. 한용운이 3·1운동의 논의 단계에서부터 참여가 가능하였던 것은 그가 1908년 4월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조동종 대학에 입학하여 일본어와 불교를 공부하였다. 한용운은 일본 유학시기에 당시 메이지[明治] 대학에서 황실 유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던 최린(崔麟)과 밀접하게 지낼 수 있는 인연을 맺게된다. 최린은 한 때 승려가 되려고 생각할 정도로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고 한다.⁴⁰⁾ 한용운은 천도교에서 3·1만세운동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최린을 통해 초기 계획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게되었다.⁴¹⁾ 이런 까닭에 한용운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⁴²⁾ 최린과의 이러한 인연으로 인하여 한용운은 천도교가 중심이 되어 계획된 3·1운동의 초기단계에서부터 관여할 수 있었다.⁴³⁾ 한용운은 송만공·백초월·박한영·오성월·진진응 등 민족의식이 강하였던 승려들을 민족대표로 가담할

39) 김희곤,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구』(서울: 지식산업사, 2004)

40) 崔麟, 『自敘傳』, 『韓國思想』4집(서울: 한국사상강좌편집위원회 편, 1962. 8), pp.153-157.

41) 李炳憲, 『三·一運動秘史』(서울: 時事時報社出版局, 1959), pp.605-606.

42) 李炳憲, 앞의 책, pp.605-606.

43) 이병현, 앞의 책, 『三·一運動秘史』, p.594.

것을 섭외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급박한 상황속에서 사찰이 깊은 산속에 위치하고 있었던 까닭에 성사시키지 못하였고, 당시 서울에 올라와 있던 백용성(白龍城) 한 사람만을 민족대표로 참여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⁴⁴⁾

불교계 3·1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켰던 승려 또한 한용운이었다. 그는 1919년 2월 28일 밤 계동 자신의 집으로 평소 자신을 따르던 중앙학림의 학생들을 모이게 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신상완(申尙玩)·백성욱(白性郁)·김상헌(金尙憲)·정병헌(鄭秉憲)·김대용(金大鎔)·오택언(吳澤彦)·김봉신(金奉信)·김법린(金法麟)·박민오(朴政梧) 등 이었다.⁴⁵⁾ 이 모임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한용운은 그간 독립운동을 준비해 온 사실을 밝혔다. 그는 불교계 여러 인사들과 접촉하였지만 교통 사정으로 면담치 못하고 백용성 한 사람만을 민족대표로 참가시킬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선언서 작성의 기초위원으로는 최남선(崔南善)·최린(崔麟) 그리고 자신이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⁴⁶⁾ 이 선언서는 보성사에서 3만 매를 인쇄하였는데 각 교단에서 만 매씩 배부기로 하였다고 한다. 한용운은 여기 모인 청년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경성과 지방에 배포하라고 당부하였다.⁴⁷⁾

이러한 지시를 받은 학생들은 인근에 있는 인사동 범어사 포교당으로 자리를 옮겨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협의하였다. 학생들은 연장자인 신상완을 총수격으로 추대하였고, 백성욱·박민오는 참모격으로 중앙에 남기기로 하였다. 나머지 사람들은 각기 연고가 있는 지역으로 내려가서 선언식을 거행하고 만세시위를 주도할 것을 결의하였다.⁴⁸⁾ 불교계 3·1운동의 전국 확산은 이들 중앙학림 학생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지방 학생들은 중앙에서 내려온 선언서를 등사하여 사찰 등지에서 선언식을 거행하였다. 시위는 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터에서 전개되었다.⁴⁹⁾ 불교계가 중심이 되어 전개된 시위운동의 구체

44) 김법린, 앞의 글, p.76.

45) 김법린, 「三一運動과 佛敎」, 『新生』 창간호(서울: 新生社, 1946. 3), p.15.

46) 김법린, 앞의 글, 「三一運動과 佛敎(史話)」(서울: 『新天地』 제1권 제3호), p.76.

47) 위와 같음.

48) 김법린, 앞의 글(『新生』 창간호), pp.16-17.

적인 상황은 <표>와 같다. 이 <표>는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⁵⁰⁾에서 정리하였던 것을 최근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보완한 것이다.

<표> 불교계 3·1운동 전개 상황

도 별	일 시	시위장소 (중심사찰)	주 도 자	참가인원	피 검 자 수	비 고
경 성	1919. 3. 1	파고다 공원	신상완·백성옥· 김상현·정병현· 김대용·오택언· 김봉신·김법린· 박민오 등	1만여명		
경기도	1919. 3. 31 ~4. 2	광주 장터 광릉천변 (봉선사)	김성숙·이순재· 현일성·강완수· 김성암·김석로· 지월·김석호 등	600여명	김성숙· 이순재· 지월 등 다수	‘조선독립임시 사무소’ 명의의 전단살포
경기도		여주 (신록사)	영봉·권중만· 윤경옥·조규선· 조석영·조근수 등	200여명	영봉 등 다수	
경상 남도	1919. 3. 7 ~3. 18	동래 장터 (범어사)	김법린·김상현· 유석규·김상호· 차상명·김성규· 김영규·김한기· 허영호·윤상은 등		차상명·김영규· 김봉환·이영남· 황원석·박영수· 김상환·박영환· 김한기 등 33명	
경상 남도	1919. 3. 20	단장 장터 (표충사)	이장옥·이찰수· 오화성·손영식· 김성흡·구연운· 오웅석 등	5,000여명	이장옥·오화성· 손영식 등 364명	통도사 승려들과 연대 시위 전개
경상 남도	1919. 3. 29	신평 장터 (통도사)	오택언·김상문· 박세문 등 40~50여명			오택언이 사전 발각되었지만 시위는 전개됨
경상 남도	1919. 3. 31 ~ 4. 16	합천 읍내 (해인사)	김봉신·홍태연· 강재호·기상섭· 김봉울·김운곤· 이덕세·김상호· 송복만·송복룡· 최범술·박달준· 벽석운·이덕진· 김장윤 등	3월 31일홍태연 이 주도한 해인사 시위 참가자 200여명 4월 16일 야로면 참가 시위자는 1만여명으 로 추정	박치수·기상섭· 송봉우 등	3개 대로 나누어서 진행되었음
경상 남도		거창 일원	신광옥·신경재· 김명수 등			

49) 김법린, 앞의 글, p.77.

50) 김순석,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대응」(서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pp.62-63.

(표) 불교계 3·1운동 전개 상황 (계속)

도 별	일 시	시위장소 (중심사찰)	주 도 자	참가인원	피검자수	비 고
경상 북도	1919. 3. 23 ~ 4. 3	대구 남문시장 (동화사)	김대용·윤학조· 권청학·김문옥 등	3,000여명		
경상 북도		김천·성주 (청암사)	김도운·이봉정· 남성엽 등			
경상 북도		선산(도리사)	김경환 등			
경상 북도	1919. 4. 13	문경군 산북면 대하주재소 부근(김룡사)	송인수·성도환 김용사 지방학림 학생 18명			사전발각으로 무산
전라 남도	1919. 3	해남(대흥사)	대흥사 불교강원생 30여명			
전라 남도		구례·강진· 보성·담양 (쌍계사·화엄 사·송광사)	박근섭·박용천· 신문수·정봉운			
충청 남도		공주(마곡사)	우산조·나경화			
충청 북도		보은(법주사)	박윤성			
황해도		해주(신광사)	홍태현			
함경 남도	1919. 3. 9 ~ 11	안변 (석왕사)				3월 8일 퇴조부락민 200여명의 시위가 있 었음. 9일부터 석왕사 에서 추도회가 열린 다는 소식을 듣고 함 남지방장관이 연기사 킴으로써 무산됨

참고문헌: 『독립운동사』 제2·3권(서울: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김법린, 『三一運動과 佛敎』, 《신생》(서울: 서울신문사, 1946. 3); 이병현, 『三一運動秘史』(서울: 시사시보사출판국, 1959); 『한국근세불교백년사』(서울: 민족사, 2002); 김정명, 『朝鮮獨立運動』 I 分冊(東京: 原書房, 1967); 최범술, 「청춘은 아름다워라」(부산: 《국제신보》 1975); 『증보판 양산항일독립운동사』(양산: 양산군향토사연구회, 2009); 『문경의 의병과 독립운동사 연구』(문경: 문경시, 2009); 《대한불교》; 《불교신문》

불교계 3·1운동에 불을 지피고 전국으로 확산시킨 사람은 한용운이고, 측면에서 적극 호응하고 가담한 사람은 백용성이었다. 그렇지만 이 두 승려가 감옥에 있을 때 불교계 3·1운동을 이끌고 간 사람은 백초월이었다. 그는 지리산 영원사 승려로서 한용운이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로 고려하였지만 교통 사정 등으로 인하여 포함시키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는 20

대 후반부터 영원사 조실로 불리우며 강백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1915년 중앙학림의 초대 강사로 내정되었으나 당시 영원사 재건불사로 인해 응하지 못하였다고 한다.⁵¹⁾ 이후 백초월은 해인사 지방학림 강사로 활동하였다. 3·1운동 직전인 1918년 10월 중순에 한용운이 해인사 강원을 찾아 강연을 하였다고 한다. 이 때에 한용운은 백초월을 만나 시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백초월은 한용운과 백용성이 옥중에 수감된 상황에서 불교계의 독립운동을 끌고 가야한다는 책임을 자임하였는지도 모른다. 그의 이러한 책임의식은 이후 그의 다음과 같은 행동에서 잘 드러난다. 백초월은 1919년 4월 초순 해인사에서 상경하여 용성·만해의 수감으로 공백이 된 불교계 독립운동의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3·1운동 당시 만해의 지시를 받아 서울 및 지방 사찰 등지에서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중앙학림 학생들을 중심으로 중앙학림에 민단본부라는 전국불교도 독립운동 본부를 설치하고 스스로 책임자가 되었다. 이어서 그는 학생들을 전국 주요 사찰에 보내어 군자금을 모으게 하고 모집된 돈을 상해 임시정부 및 만주 독립군에 전달하였다. 그는 또한 불교계 청년들을 임시정부 및 만주 독립운동 단체에 파견하기도 하였다.⁵²⁾ 이러한 행보는 백초월의 민족운동은 직접적 투쟁, 비밀결사 투쟁이라는 특성이 잘 드러난다. 이런 성격은 비밀결사체인 일심교(一心敎)라는 비밀결사 조직을 통하여 대원을 선발하였고, 이들은 용산역 낙서사건 등에서도 나타났다.⁵³⁾ 백초월을 비롯한 일심회는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을 보면서, 용산역에서 다수의 군용열차가 준비되고 곧 조선인 특별지원 등이 출정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다. 백초월은 당시 조선운송주식회사 용산영업소 임시 인부로 취업중인 박수남에게 밀명을 내려 동 군용 열차 내에 백묵으로 불온낙서를 쓰게 했다. 이들은 일제의 강요로 인해 모집된 육군특별지원병들을 수송하는 열차에 ‘조선독립만세’, ‘국가주의의 장래’ 등의 자구를

51) 김광식, 「백초월 독립운동의 성격」, 『전자불전』19권, 서울: 동국대학교 전자불전연구소, 2017, pp.85-87.

52) 김광식, 앞의 논문, p.90.

53) 김광식, 앞의 논문, p.91.

백묵으로 대서하였다. 이 사건으로 백초월은 일경에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아 실성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마포·대전 형무소를 거쳐 1944년 6월 청주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⁵⁴⁾

백초월은 자신이 생전에 다할 수 없었던 일들을 후세 사람들이 이어가라고 했을까? 아니면 해방된 조국에서 불교계는 이렇게 독립을 위한 간절한 발원을 했었다는 것을 알리려고 했을까? 자신이 머물렀던 진관사 벽 속에 태극기를 비롯한 다수의 지하신문과 독립운동 자료를 숨겨 두었다. 이 자료들이 90년 세월이 지난 2009년에 발굴되어 학술대회가 열리고 백초월의 사상과 행적이 새롭게 조명되기도 하였다.⁵⁵⁾

IV. 현시점에서 반성과 과제

불교계 3·1운동은 천도교 교단에서 기획하던 이 거사에 실무책임자였던 최린과 가까운 인간관계를 맺고 있었던 한용운이 참가하면서 시작되었다. 한용운은 불교계의 항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승려들을 민족대표로 참석시키고 싶었지만 교통사정으로 함께 할 수 없었고, 당시 서울에 있었던 백용성만을 가담시켰다. 3·1운동에서 한용운의 역할은 선언서 작성에서 공약삼장을 추가하였다는 설과 최남선이 전담하였다는 설이 맞서있는 상황이다. 그는 2월 28일 밤 자신을 따르던 중앙학림의 학생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경성에서 만세시위에 참여할 것과 이후 지방으로 이 운동을 확산시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는 재판과정에 당당한 태도로 재판에 임하였기 때문에 일본 검사로부터 조선이 독립해야하는 까닭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 요구에 의해 더운 여름날 감옥 안에서 쓰여진 것이 「조선독립의 서」였다. 이 논설에서 조선은 오랜 세월 동안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가진 문화민족이라는 것을 밝혔다, 그런

54) 김광식, 「백초월의 삶과 독립운동」, 『불교학보』 39(서울: 불교학회, 2002)

55) 김광식, 「백초월의 항일운동과 일심교」, 『불교와 국가』(서울: 국학자료원, 2013)

까닭에 제국주의 노선으로 치닫는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은 부당하며, 인류평화와 자유·평등사상을 저버리는 야만행위임을 규탄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일본의 패망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였다.

조선이 독립되어야하는 당위성은 1919년 11월 15일 상해에서 발표된 「대한승려연합회선언서」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선언서는 국한문 혼용과 영문 그리고 한문으로 발표되었다. 1920년 5월 6일 일본 고등고등경찰은 이 선언서를 일본어로 번역하여 활동하였다. 이 선언서는 일제 식민통치의 잔혹성을 세계인에게 알림으로써 무장투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독립을 성취하려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 선언서는 국내에서 대중운동을 고취시키려는 것이라기 보다는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한 세계 각국 외교사절에게 조선독립의 정당성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선언서가 발표된 곳이 상해였고, 대표자의 이름도 가명이었던 점에서도 그러하다. 불교계는 자비와 평등, 자유와 평화를 중시하므로 만세시위에서도 한용운의 「조선독립의 서」와 「대한승려연합회선언서」에도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내가 살기위해서 내가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독립을 요구하였던 불교계 3·1운동을 어떻게 현창하고 계승해야하는지를 검토해보자. 우선 불교계 3·1운동의 전체상을 그려볼 수 있는 밑그림이 그려져야 한다. 그렇게 하자면 이 부분에만 관한 박사학위 논문이 배출되어야 한다고 본다. 혹자는 이렇게 묻는다. 그럴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보자. 한용운과 백용성의 재판기록, 일본 고등경찰보고서, 전국의 만세시위 현황자료, 3·1운동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의 각종 회고록, 『한용운전집』·『백용성전집』·『최범술전집』 등이 있다. 그리고 본문의 각주에 언급된 3·1운동의 연구사 정리 논문 이러한 자료와 논문들이 있다.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 몇 편의 박사학위 논문도 쓰여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박사학위 논문이 배출되는데 학계와 교계의 지원이 있다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다. 발표된 학위논문은 단행본으로 출간하여

대중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을 것이다. 불교계는 3·1운동을 겪으면서 많은 많은 승려들과 교도들의 희생을 치루었다. 오늘을 살아가는 불교도들은 이들의 희생을 현창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불교계의 독립운동을 후세에 알리는 기념관 건립도 필요하고,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그리고 유튜브 같은 영상 제작하여 대중들에게 알리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매체들은 청소년 불자들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청년들이 공감하지 못하면 불교계의 미래는 없다. 오늘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어디 있는가?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술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된 사실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역사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원전자료

- 鳩摩羅什 譯, 『金剛般若波羅蜜經』, 금강경독송회, 1996.
- 김정명, 『朝鮮獨立運動』 I 分冊, 東京: 原書房, 1967.
- 백암박은식선생전집편찬위원회, 『白巖朴殷植全集』 II, 서울: 동방미디어, 2002.
- 《국제신보》, 《대한불교》, 《불교신문》.

2. 2차자료

<단행본류>

- 강석주·박경훈, 『불교근세백년』, 서울: 민족사, 2002.
- 강만길 편, 『밀양의 독립운동사』, 밀양: 밀양문화원, 2003.
- 김광식, 『한용운 연구』,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1.
- 김소진, 『한국독립선언서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1998.
- 김순석,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대응』, 서울: 경인문화사, 2003.
- 김희곤,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2004.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4권, 서울: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3.
- 박걸순, 『한용운의 생애와 독립운동』, 천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2.
- 박노준·인권환 공저, 『萬海 韓龍雲研究』, 서울: 통문관, 1960.
- 문경시, 『문경의 의병과 독립운동사 연구』, 문경시, 2009.
- 양산군향토사연구회, 『증보판 양산향일독립운동사』, 양산: 양산문화원 2009.
- 李炳憲, 『三·一運動秘史』, 서울: 時事時報社出版局, 1959.

<논문류>

- 김광식, 「백초월 독립운동의 성격」, 『전자불전』 19권, 서울: 동국대학교 전자불전연구소 2017, pp.85-91.
- _____, 「대한승려연합회선언서와 민족불교론」, 『민족불교의 이상과 현실』, 안성: 도피안사, 2007, pp.52-83.

- _____, 「박영희의 독립운동과 민족불교」, 『대각사상』제25호, 서울: 대각사상연구원, 2016, pp.9-38.
- _____, 「오성월의 삶에 투영된 선과 민족의식」, 『불교와 국가』, 서울: 국학자료원, 2013, pp.161-195.
- _____, 「백초월의 항일운동과 진관사」, 『불교와 국가』, 서울: 국학자료원, 2013, pp. 92-128.
- _____, 「통도종의 민족교육과 폐교사건 : 3·1정신 계승의 사례」, 『불교계의 3·1운동과 항일운동』 발표자료집,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019, 2, 27, pp.153-176.
- 김법린, 「3·1운동과 불교」, 서울: 《新天地》 제1권 제3호, 서울신문사, 1946, 3, p.76.
- _____, 「3·1운동과 불교」, 서울: 《新生》, 新生社, 1946, 3, pp.16-17.
- 김상현, 「한용운과 공약삼장」, 『동국사학』19·20, 서울: 동국사학회 1986, pp.325-347.
- _____, 「3·1운동에서의 한용운의 역할」, 『이기영박사고회기념논총』, 1991, pp.531-552.
- 김순석,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대응」,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pp.62~63.
- _____, 「「대한승려연합회선언서」의 재검토」, 『불교학보』66, 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3, pp.191-212.
- _____, 「한용운의 민족주의 운동 연구 전망」, 『만해학보』14·15합호, 서울: 만해사상실 천선양회, 2015, pp.242-243.
- _____, 「3·1운동기 영남 지역 종교계의 동향」, 『영남의 3·1운동과 만주의 꿈』, 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 2019, pp.142-177.
- 박걸순, 「3·1독립선언서 공약삼장 기초자를 둘러싼 논의」,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8집, 천안: 독립운동사연구소 1994, pp.183-203.
- _____, 「3·1독립선언서 공약삼장 기초자에 대한 재론」, 『한국근현대사연구』46, 서울: 한국근현대사연구회, 2008, pp.176-177.
- 송석구, 「경전에 나타난 호국사상」, 『불광』 통권 56호, 서울: 불광사 1979, 6, p.77.
- 안계현, 「3·1운동과 불교계」, 『三一운동 50주년 기념논집』, 서울: 동아일보사, 1969, pp.271-280.
- 이덕주, 「3·1운동과 기독교」, 『한국기독교와 역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엮음, 2017, pp.107-108.

- 조용만, 「독립선언서의 성립 경위」, 『3·1운동 50주년 기념논집』, 서울: 동아일보사, 1969, p.221.
- 조지훈, 「民族主義者 韓龍雲」, 『韓龍雲全集』 4, 서울: 불교문화연구원, 2006, pp.363-364.
- 최린, 「자서전」, 『한국사상』 4집, 서울: 한국사상강좌편집위원회 편, 1962. 8, pp.153-157.
- 최화정, 「해인사의 3·1운동」, 『불교계의 3·1운동과 항일운동』 발표자료집, 서울: 대한 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019, 2, 27, pp.123-150.
- 한동민, 「일제강점기 신상완의 독립운동」, 『대각사상』 제13집, 서울: 대각사상연구원, 2010, pp.139-178.
- _____, 「3·1운동과 불교계의 항일운동」,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5권, 서울: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2016, pp.11-60.
- 한상길, 「통도사와 표충사의 3·1운동」, 『한국불교학』 89, 서울: 한국불교학회, 2018, p.59.
- _____, 「金龍寺의 3·1운동」, 『불교계의 3·1운동과 항일운동』 발표자료집, 서울: 대한 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019, 2, 27, pp.47-63.

Dynamics and Current Reflections of Korean Buddhism in the March 1st Movement

Kim, Sun seok
Senior Research Fellow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The year 2019 marks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outbreak of the March 1st (Sam-il) Independence Movement against the Japanese colonial rule. Religious group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Movement which was led by the leaders of the Chondoist, Christian and Buddhist communities in the preparation process. Also the religious organizations were greatly used in spreading the movement from the center to the provinces. The March 1st Movement of Buddhist community also developed in this way.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ddhist March 1st Movement is that the struggle took place even in prison. Manhae Han Yong-un composed *Reasons for Korean Independence*" (*Joseondongnip-eui-seo*) as a response to the official investigation into his engagement, at the Seodaemun Prison. The article explains in logical detail why Joseon (now Korea) should be independent. Jo Ji-hoon, a contemporary prominent poet, praised it as a great writing of the time.

On November 15, 1919, the 12 high-profile Buddhist monks in Shanghai announced the Declaration of the Korean Monks Association. Existing studies have interpreted the Declaration of the Korean Monks Association as a declaration of struggle against Japan, a sign of gaining independence through bloody warfare rather than seeking peace and practicing mercy. However, in reality, the declaration aimed at world peace beyond the struggle through a bloody war against Japan for

independence.

Keywords

Buddhist March 1st Movement, Han Yong-un, Baek Yong-sung, Baek Cho-wol, Jung-ang Hak-rim, *Reasons for Korean Independence (Joseondongnip-eui-seo)*, Declaration of the Korean Monks Association

2020년 02월 05일 투고

2020년 03월 14일 심사완료

2020년 03월 23일 게재확정